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성장주의'

3대 종교지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장면.

투명한 운영 관련해 가톨릭 85.7% '긍정적'
개신교 정치적 영향력 가장 크다 47% 응답
"정교분리 넘어서 긍정적 관계 설정" 지적도

교세 및 건물 확장 등과 같은 성장주의(25%), 배타성(17.8%)과 종교단체의 부정부패(12.3%), 지도자의 도덕성(11.6%)이 종교계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다. 7월 30일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는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불교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 본당주임신부와 개신교 교회 담임목사 등 각 종교별 100명씩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종교간 갈등의 원인으로 '배타적인 전파방법'(32.1%)이 첫 번째로 꼽혔다는 것이다. 이어 '타종교 이해부족'(21.5%), '교리 차이'(14.3%), '종교지도자의 독선'(12.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 가톨릭 응답자의 85.7%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불교는 56.1%, 개신교는 27.9%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차이가 있었다.

또 정치권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종교로 47.0%가 개신교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가톨릭(30.9%), 불교(20.4%) 순이었다. 선거 때 실제 득표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를 꼽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 28.6%, 가톨릭 13.9% 등으로 꼽아 정치권력에 대한 영향력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가장 특정 종교 편향적이었던 역대 대통령'으로는 김영삼(42.7%) 이승만(30%) 전두환(8.6%) 박정희(7.5%), 김대중(6%) 前 대통령 순으로 집계됐다.

결과 발표에 이은 세미나에서는 결과 분석에 대한 각 종교계의 논평도 이어졌다.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목사는 "정치권력은 물론 실질 득표 면에서 모두 개신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개신교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박희택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종교 간에 차이점들이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존재의 평등에 의한 종교 평화관으로 차이를 존중하는 종교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은 "종교계가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불교는 배타성, 개신교와 가톨릭은 성장주의 문제를 꼽았는데 배타성이 성장주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I Love Buddha / 나는 누구인가

용정운(www.zentoon.com)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의원에서 채택됐다. 미 하원은 7월 30일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공식 인정 및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간 종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에 대해 최대 우방국인 미국 의회가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경기도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이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령 기자**

충북 사찰 64% 식수 부적합
오염도 높은 곳 수원대체키로

휴일 이용객이 많은 충북지역 72개 사찰 중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 64%인 46곳이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지역 사찰 72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46곳의 사찰에서 세균은 물론 중금속까지 검출돼 함부로 마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주는 관음사 보살사 길상사 봉덕사 화암사 연화사 등 6곳, 충주는 태고사, 청원은 청운암 안심사 현암사 청룡사 등 4곳, 옥천은 법륜사 대성사, 진천은 보탑사 대흥사 약수암 성림사, 괴산은 군자사와 청운암, 음성은 묘정사와 백운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사찰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동시설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먹는 물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구체적인 오염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오염도가 높은 곳에 대해선 수원대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경북도 · 조계종 5대 본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선언

경북지역 조계종 5대 본사와 경상북도가 불교문화유산 보존 · 관리에 함께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직지사(주지 성웅), 동화사(주지 허운), 은해사(주지 법타), 불국사(주지 성타), 고운사(주지 호성)와 경상북도(도지사 김상준)는 7월 2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 내에 있는 중요문화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불교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조계종 5대 본사는 문화재와 그 주변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문화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도는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 ·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청 문화재과장과 조계종 5대 본사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스님들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하고, 문화재 관련 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개금 · 채색 벗고 원 모습으로

보림사 ·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보존처리 완료


보림사 철불 보존처리 전(왼쪽)과 후.


도피안사 철불 보존처리 전(왼쪽)과 후.

개금과 채색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77호)과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이 철불로서의 자태를 드러냈다. 그간 보림사 불상은 갈색 도료가, 도피안사 불상은 도금이 입혀져 철불 본래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두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무리하고, 최근 불상을 공개했다. 두 불상은 통일신라시대(9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서의 존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보존처리가 시작됐다.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표면에 갈색 도색층과 기존의 흠집을 가리기 위한 알루미늄층을 모두 제거하고, 귓불 성형을 마쳤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나발 부분에 칠해진 검은색 페인트와 개금층, 카슈층(옻칠과 같은 인공도료 피막층), 석회층(일제 강점기에 칠해진 것)은 물론 부식돼 탈락한 녹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귓불 역시 고증을 통해 성형 및 보존처리를 거쳤다.

여수령 기자

도난문화재 무조건 몰수 '위헌'

헌재 "선의취득도 처벌대상 삼는 것은 가혹"

도난문화재라 하더라도 현 보유자가 보유 · 보관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무조건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한 도굴된 문화재를 보유 ·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7월 26일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 매매업자 2명 등 3명이 "도난 문화재를 무조건 보유자로부터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문화재 은닉 행위자로부터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는 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5항 중 일부 부분와 '도굴됐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보유 또는 보관한 자로부터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는 104조 7항 중 일부 부분이다.

헌재는 "문화재의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인 사정을 알고 보유 · 보관하는 행위의 양태가 매우 다양함에도 구체적 양태나 적법한 보유권한 유무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굴 문화재를 보유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104조 4항과 관련 조항도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인정되나, 도굴 문화재의 '선의취득' 등 취득 후에 사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대한투자증권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종합PB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 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CONGKEON